

문 의	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	과 장 전현진 사무관 이상윤	042-481-5460 042-481-5112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18년 6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6월 18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지식재산분야 사이버공격 대응능력 강화한다!

- 특허청(청장 성윤모)은 소속 산하기관 및 IP정보통합센터*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 지식재산분야 사이버공격 합동 대응훈련을 6월 19일(화) ~20일(수) 양일간 실시한다.

* IP정보통합센터 :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개별 운영되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관리·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식재산 분야의 통합전산센터

- 이번 합동 대응훈련은 지난 5월에 특허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모의 해킹메일 대응훈련에 이어, 특허청 및 산하기관, IP정보통합센터 등 지식재산분야의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담당자,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.

○ 이는 사이버공격 발생시 초동 대응능력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- 업무 담당자들은 악성코드 유포의심 서버로부터 해킹 메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시도, 홈페이지 변조 등 가상의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단계별(탐지→ 초동조치 → 사고조사 → 피해복구 → 후속조치 등) 조치를 수행한다.

- 한편, 특허청 보안관제센터 및 IP정보통합센터는 감염 의심 시스템에 대한 탐지와 격리, 사이버공격 유발지에 대한 경로 추적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사이버공격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.
- 이를 통해, 지식재산분야 정보시스템의 사이버공격 대응능력이 배양되고,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지식재산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하반기에는 소속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메일 대응 훈련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
-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“이번 합동 대응훈련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의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점검 및 강화할 예정이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능화,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이상윤 사무관(☎ 042-481-51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